

집필진

김영옥 |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박찬옥 |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기숙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연구진

김은영 | 육아정책연구소 전략기획센터장
장혜진 |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규림 |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연주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김지예 | 육아정책연구소 인턴연구원

연구협력관

박주용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장석환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서기관
김경희 | 충청남도 교육청 유아교육담당 장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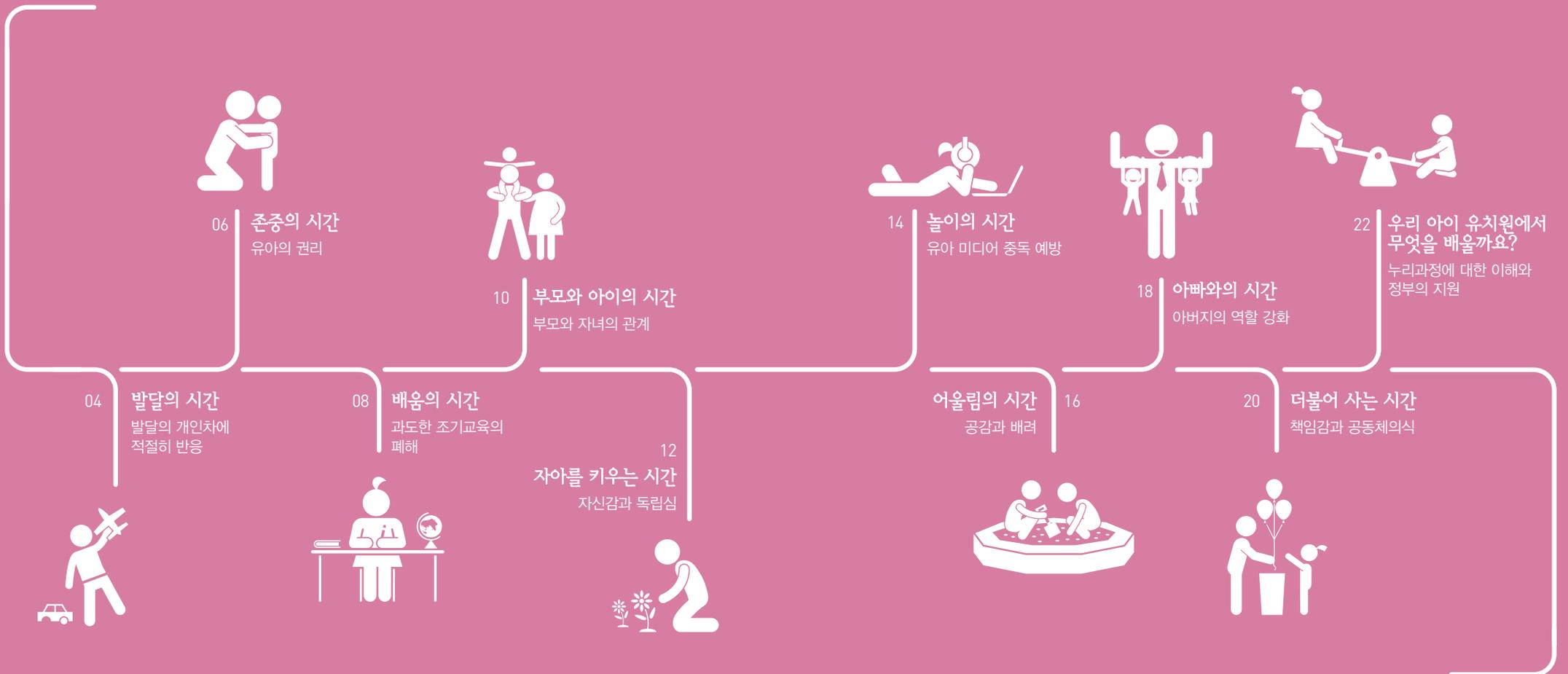
아이의 시간, 성장의 비밀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 어른을 위한 책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것은 세상과 미래를 키우는 일입니다

가정은 처음 만나는 세상,
부모는 유아의 첫 번째 선생님입니다.
언제나 더 나은 교육 방법을 고민하는 부모의
적극적인 실천으로부터 행복한 육아가 시작됩니다.

세 살의 '행복'이 여든까지 갑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유아교육의 중요성,
아이들에게 행복해지는 '습관'을 가르쳐 주세요.
세상이, 미래가 더 큰 감동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발달의 시간

발달의 개인차에 적절히 반응

쌍둥이에게도 발달의 개인차가 존재한다

얼굴과 성격이 다르듯 발달 시기와 영역에도 개인차가 있어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발달을 이루어 가지만 그 속도는 시기와 발달영역에 따라 다릅니다. 즉, 신체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언어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성장 발달은 공통적인 면도 있지만 인종, 성별, 양육환경, 유전인자 등에 따라 개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이가 같고 성별이 같은 영아들도 신장이나 체중은 물론, 운동기능과 지각 능력에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개인차는 일란성 쌍둥이 간에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발달이 일어나는 민감한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발달의 개인차를 인정해 주세요

많은 엄마들이 자신의 아이를 주위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발달이 늦는 것은 아닌지 조바심을 내곤 합니다. 하지만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획일적인 틀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너는 그것도 못하냐?”고 타박하거나 재촉하기보다는 발달의 개인차를 이해하고 기다려 주세요. 아이의 발달은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발달 환경을 마련해 주세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는 시기마다 그 아이만의 눈높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슬러 가르치려 든다면 제대로 된 성장발달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유아의 발달 과정을 보면 어떤 영역의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특정 시기가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 유아교육에서는 ‘결정적 시기’라고 합니다. 이 결정적 시기에 아이가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자극과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언어, 인지, 정서적인 발달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영역의 발달 상황을 다른 아이와 비교하고 걱정하기보다 내 아이의 발달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발달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육아의 기본입니다.



존중의 시간

유아의 권리

부모의 양육권보다 독립된 인간으로서 유아의 권리가 먼저다



유아의 권리란?

유아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모든 권리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아를 한 인간으로서,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주체자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아는 미성숙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지만, 그 권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유아의 권리, 지켜주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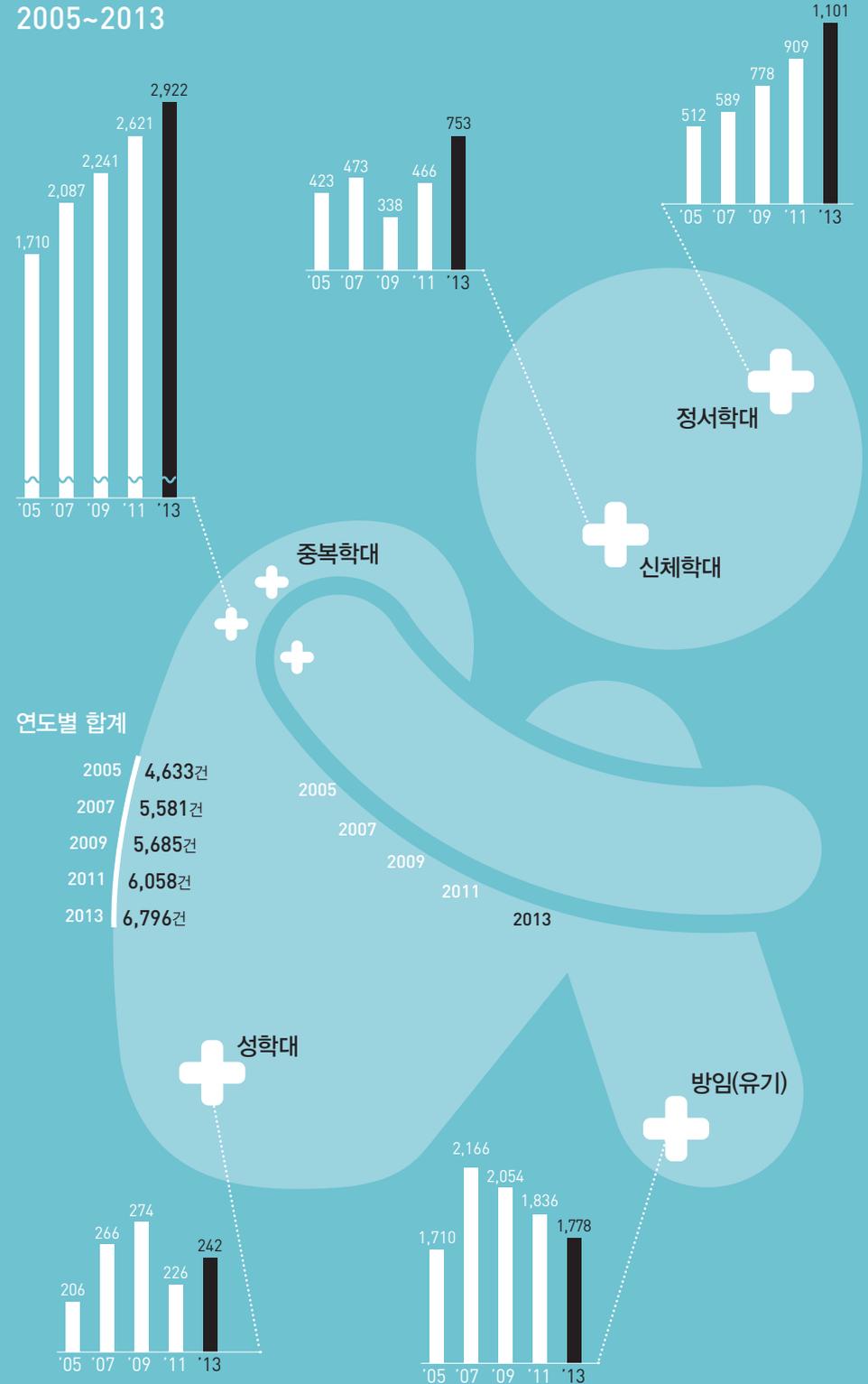
유아를 미숙한 존재로 간주했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자녀 양육 방식에서는 자녀에 대해 인권을 가진 주체라기보다는 보호되고 양육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강했습니다. 자녀 양육권이 부모에게 있고 이에 따라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는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도 자녀를 하나의 주체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마땅합니다. 가정 내에서 유아를 하나의 인권을 가진 인격체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유아의 권리, 가정에서 먼저 지켜주세요

현대사회에서는 유아기 교육의 시발점을 가정 밖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부모들의 육아불안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소위 전문가의 손에 맡겨야 교육이 잘 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자꾸 축소되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역할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자녀들의 기본적인 습관과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일차적인 장소이며 그 담당자는 교사가 아닌 부모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아이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한 아이가 인권 의식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발생현황

2005~2013



배움의 시간

과도한 조기교육의 폐해

먼저 출발한다고 해서 반드시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

유아는 학생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평가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6세 이하의 유아교육 현황을 조사한 검토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부모는 유아를 ‘공부하는 학생’으로 취급하고 있다.”

한글을 일찍 깨치면 공부도 잘 할 거라고요?

일찍부터 셈하기와 글씨 쓰기를 강요받아 온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효과에 대해 8년 간 추적 연구한 결과,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이 되었을 때 다른 아이들에 비해 국어, 수학에서 월등히 뛰어나지도, 학업성적이 그다지 우수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창의성이나 사회·정서적 발달에 있어 놀이 중심의 유치원에 다녔던 유아들보다 훨씬 뒤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많은 선행학습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생각의 힘을 키울 시간을 주세요

일찍부터 자신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한글읽기에 노출된 아이일수록 집중력은 떨어지고 산만하며 충동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책을 읽고 독해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아직 발달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이야말로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창의적인 사고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뒹굴거리며 상상할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도한 조기교육 대신 적기교육을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기교육이 아닌 적기교육입니다. 각 연령에 필요한 핵심 능력과 형성되는 습관 및 태도들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교육에 집착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귀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부모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하는 것은 옆집 아이의 학원이나 학습지 이름이 아닌 내 자녀의 흥미와 요구, 연령이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놀이 환경입니다.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명확한 교육관을 바탕으로 자녀의 미래를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부모가 되어 주세요.

조기교육의 폐해 유형



조기교육 여부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국어 점수

(단위 : 점, 308명 조사, 사교육 시점은 만 5세 기준)



출처: 이기숙, 김순환, 김민정(2011), 유아기의 기본적인 언어능력이 초등학교 1학년 국어 학력과 어휘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1(5), 299-323.

부모와 아이의 시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세상을 배운다



가정은 하나의 작은 '사회'입니다

가정은 낱줄과도 같은 수직적 유대감과 씨줄과도 같은 수평적 신뢰로 형성된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등의 발달적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적절히 '쓰다듬어' 주는 일이 필요하지요. 이러한 쓰다듬기는 부모의 사상이나 관습 및 행동에 의한 것도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물리적, 정신적 환경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유아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성격 형성의 기초를 이루며 앞으로의 삶에 중요한 기초를 놓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좋은 관계,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 애정과 신뢰를 심어주세요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은 세상에 대한 애정과 기본적 신뢰를 갖게 하며 이를 통해 긍정적 자아를 형성합니다. 바람직한 부모-자녀의 관계는 서로가 애정을 가지고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면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으며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쉽게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세요

슈바이처는 성공적인 자녀교육 방법을 "첫째는 본보기요. 둘째도 본보기요. 셋째 역시 본보기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인 부부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며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의 모범을 보일 때 자녀 또한 행복의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것입니다.

•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부모의 권위를 지켜 주세요

자녀가 바람직하게 성장하려면 부모의 권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강압적이거나 독재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격이나 권위를 보여줄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존경하며 따르게 됩니다.

• 마음을 열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부모-자녀 관계는 개방된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자녀 역시 부모를 섬기는 관계여야 합니다. 또한 서로 대화를 통하여 원활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서로를 성숙시키는 부모-자녀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살아가지만 똑같은 시기와 세대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가치를 느끼고 읽고 받아들여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며 성장합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동안 부모도 함께 성숙해 갑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늘 가르치려는 태도만 고집하기보다는 주위의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고 인내하며 자신의 인격도 성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아를 키우는 시간

자신감과 독립심

자신감과 독립심은 아이들 꿈의 에너지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자신감과 독립심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자기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는 마음이고, 독립심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마음입니다. 즉, 자신감과 독립심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에서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긴밀한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인 사람에게는 자신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 의존적인 사람에게는 자신감보다는 무력감이 나타납니다. 즉, 스스로 할 줄 아는 아이가 자신감도 높다는 의미입니다.

자신감과 독립심, 자녀를 믿어줄 때 자라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녀의 자신감도 부모가 자녀를 믿어줄 때 자라납니다. 믿음을 받는 아이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아 집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엄마, 이거 제가 할게요. 저도 잘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자녀에게 “아니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못해.”, “그냥 뒤, 아빠가 할게.”, “바쁘니까 나중에 시켜줄게.”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 자녀는 자발성을 잃게 됩니다. 자율성과 주도성이 한껏 확장되는 어린 시절에는 기회조차 주지 않다가 나중에 크면 저절로 잘하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아이가 혼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섯 살 자녀라면 토스터에 빵을 굽고 잼을 바르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만 내려놓는다면 말이지요. 여섯 살 무렵에는 자고 일어난 이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지각하는 것보다 내가 해주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버린다면 말이지요. 일곱 살쯤 되면 스스로 샤워도 할 수 있습니다. 비누가 제대로 헹궈졌는지 안심 안 되는 부모의 걱정만 없다면 말이지요.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해낸 일에 대해 아낌없이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독립심과 자립심이라는 꿈의 에너지가 넉넉히 더해질 것입니다.



놀이의 시간

유아 미디어 중독 예방

미디어 중독, 부모의 행동으로 결정된다



우는 아이 달래는 현대판 곳감?
스마트폰

식당이나 차 안, 공공장소에서 자녀가 울거나 떼를 쓸 때, 또는 놀아달라고 하루 종일 쫓아다닐 때 텔레비전을 틀어주거나 스마트폰을 쥐어주며 문제를 빨리 잠재우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전자 미디어에 ‘우는 아이 달래는 현대판 곳감’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영유아 미디어 중독 왜 위험한가요?

전자미디어는 정보와 지식 습득, 관계 형성, 학습의 도구로서 여러 가지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많은 역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파 노출, 체력 저하와 비만, VDT 증후군(컴퓨터 관련 질환), 건전한 가족 문화 결핍, 중독, 언어습득 능력 저하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골격이나 세포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가 더욱 깊이 투과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영유아기의 미디어 사용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해주세요.

영유아 미디어 중독, 부모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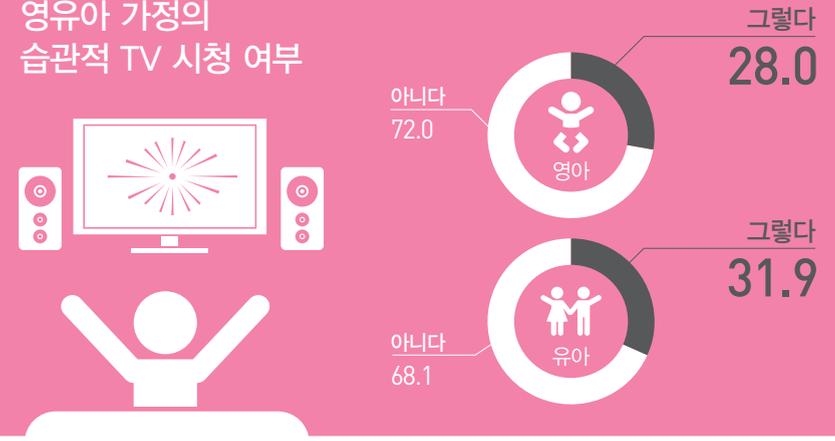
가정은 전자미디어의 첫 경험 장소입니다. 일요일이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틀어놓는 엄마, 퇴근하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은 아빠,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강력한 모델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조절력이 부족한 어린 자녀에게 부모의 이런 습관이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부모는 전자미디어 사용에서 절제된 모습으로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미디어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궁금한 것을 검색하여 알아보는 등 전자 미디어의 순기능에 초점을 맞춰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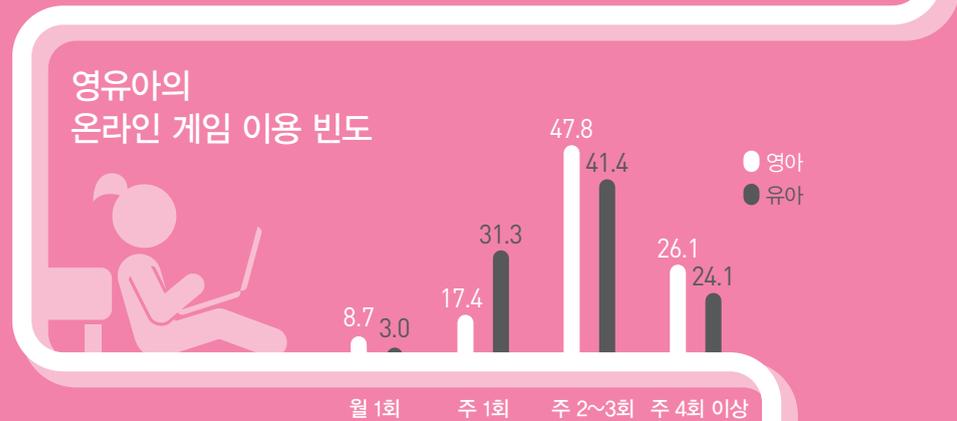
미디어를 대신할 수 있는 놀이를 함께해 주세요

전자 미디어에 허용적이던 부모가 갑자기 이를 금지했을 때 아이가 짜증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텔레비전을 틀어 주거나 스마트폰을 주지 말고 자고 결심하는 것과 동시에 ‘그렇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하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함께 외출할 때는 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는 놀잇감을 미리 챙겨 가세요. 또 전자 미디어 대신 놀이의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숨바꼭질, 공놀이, 자전거 타기 등을 하며 신나게 놀아 주세요. 특히 운동 놀이는 대·소근육을 고르게 활용하고 사회성도 기를 수 있어 더없이 좋은 방법입니다.

영유아 가정의 습관적 TV 시청 여부



영유아의 온라인 게임 이용 빈도



출처: 이정림, 도남희, 오유정(2013). 영유아의 미디어 매체 노출실태 및 보호대책 p64, p66 표를 재구성함.

어울림의 시간

공감과 배려

공감과 배려는 행복한 관계의 씨앗이다

공감과 배려, 왜 중요한가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공감과 배려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 곁에는 따르는 이가 많습니다. 이는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기본 자질입니다.

배려는 공감에서 시작되고 공감은 가정에서 성숙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공감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친구가 그네를 타다가 떨어져 다치는 것을 보면 같이 울음을 터뜨리고, 과자를 먹고 있는데 동생이 입맛을 다시면 “너도 먹고 싶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감할 줄 아는 아이는 배려도 잘합니다.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주거나 동생에게 과자를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자녀의 공감능력이 잘 성숙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공감이란 무엇인가요?

공감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보고 상대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며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신발 끈을 매려고 애쓰는 어린 아이를 보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손가락을 움찔거리곤 합니다. 권투 구경을 하는 관객들을 보면 어금니를 물고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바로 공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은 배려의 관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감정으로, 배려하는 행위의 동기로 작용합니다.

부모가 먼저 공감과 배려의 모습을 보여 주세요

자녀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괜찮아, 일어서!”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저런, 많이 아팠겠다!”라고 말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 중 공감할 줄 아는 부모는 누구일까요? 아이가 아플 때 “네가 아프니까, 엄마 마음도 아프구나.”라고 말해 보세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갈 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빠와의 시간

아버지의 역할 강화



세상에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도 있다



아빠의 양육 참여, 매우 중요해요

최근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 및 연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과 경험, 아버지와 상호작용 등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는 전통적으로 엄격한 훈련의 역할을 담당해 왔고 어머니는 따뜻한 정서적인 역할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나누기보다 상호 보완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아버지가 되어 주세요

• 공동의 양육자로 함께해 주세요

부모는 공동의 보호자인 동시에 양육자입니다. 자녀는 어머니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므로 아버지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지요. 아버지는 특히, 신체적, 물리적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 남성상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이 되어 주세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미래의 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준입니다. 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자신이 만난 첫 번째 남자이며, 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아빠와 같은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표본이 됩니다. 성 동일시의 대상이자 이성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배우는 역할모델로서 자녀들이 건전한 성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공정하고 권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 주세요

자녀가 잘못을 했을 경우,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설득력 있는 지시를 통하여 공정함과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먼저 여자와 약자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이들에게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아버지를 포함한 성인의 권위를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든든한 친구이며 열린 대화의 상대가 되어 주세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하기 위하여 자녀를 지지해 주는 아버지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필요할 때 열린 마음으로 귀기울여 들어주고 자녀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유아기에 특히 신체활동 등을 같이 해 줄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아버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몸으로 부딪치며 놀이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세요.

•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멘토가 되어 주세요

자녀를 바람직한 길로 안내하기 위해 아버지 자신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은 소중한 역사이며 자산이 됩니다. 자신의 성공과 실패, 다양한 시행착오의 맥락과 방법들은 인생의 선배이자 멘토로서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시간

책임감과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행복한 삶을 위한 빛과 소금이다

책임감과 공동체의식, 왜 중요할까요?

과보호와 경쟁 유발적인 환경 속에서 유아들의 이기적인 성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올 융·복합 시대는 협동적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를 미래사회가 원하는 인재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통한 공동체의식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책임감의 기초, 유아기에 형성됩니다

18개월에서 3세 정도까지 영유아들은 '자아형성의 격동기'를 맞이합니다. 고집과 떼가 늘고 "싫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며, 내 것에 대한 생각이 강해지고 호기심도 함께 발달합니다. 이 시기에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긍정적 자아 형성과 책임감의 기초가 됩니다.

과잉보호에서 벗어나야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요

유아는 주변의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고 해결해 보려고 궁리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선택, 판단,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고와 책임감이 길러집니다.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면 자신의 좋은 감각을 연습하고 판단해 보며 책임감을 느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부모는 이러한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아이로 키우는 육아법

• 칭찬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칭찬은 자녀가 발전하도록 북돋워 줍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야단치기보다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칭찬이나 보상을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칭찬을 할 때는 '훌륭하다, 착하다'와 같은 피상적인 칭찬보다 "OO를 잘했구나, 다음에는 OO도 잘 할 수 있겠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 일의 즐거움과 역할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자녀에게 작은 심부름이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맡겨 성취감과 일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해주세요. 이 때 작은 일이라도 자녀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가 도와주어서 상자를 꺼낼 수 있었구나, 고맙다."와 같이 말해 준다면 성취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키우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 행동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인정해 주세요

자녀가 행동한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도 그 동기나 의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를 도와주려다가 접시를 깬다면 "엄마를 도와주려고 그랬구나, 다음에는 두 손으로 잘 잡고 깨지지 않게 조심하자!"라고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 주세요. 그리고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해주세요

아이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OO야, 만일 네가 저 사람 혹은 친구라면 어떨 것 같니?"라고 물어봐 주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경험을 통해 공감과 감정이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 유치원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와 정부의 지원

누리과정이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입니다.

0-2세 표준보육과정 → 3-5세 누리과정 → 초등학교교육과정
교육의 연계성을 고려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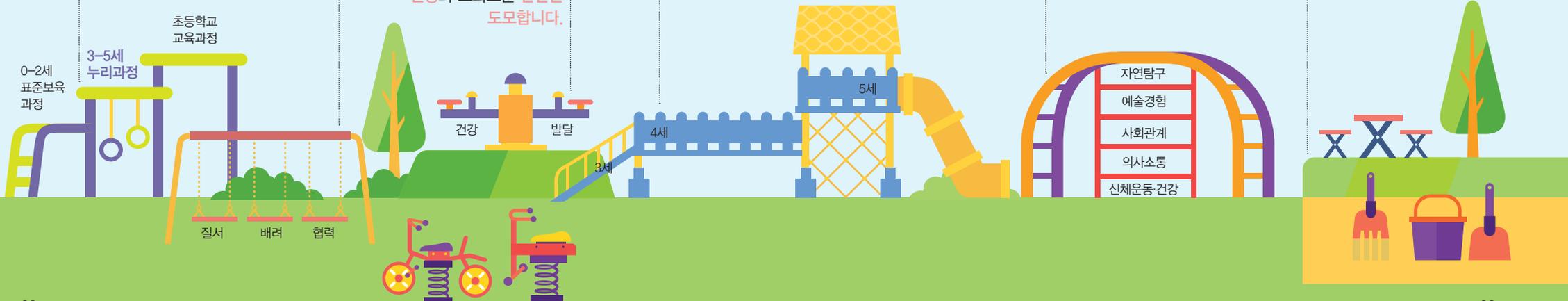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 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만 3-5세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하였습니다.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합니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 사랑 문화 교육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아를 위한 정부 지원

☑ 모든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금액: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6만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22만원

☑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방과후과정도 지원합니다. 방과후과정은 유치원에 8시간 이상 머물러야 하는 유아를 위해 누리과정을 심화하고 확장한 다양한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금액: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5만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7만원

☑ 유치원 주요 정보를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유치원 정보공시제를 통해 학부모가 유치원의 주요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평가, 컨설팅 장학,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유치원과 교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